



날개꺾인 독수리 만나면 허약한 방망이 '홈런 쇼'

KIA 팀 홈런 70개 중 한화전 14개 '평평'... 오늘부터 대전서 주말 3연전, 공격 터닝포인트 기대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3연전을 위해 대전을 찾는다. 타선의 부침으로 힘겨운 일전을 이어온 KIA는 주말 한화전을 공격의 '터닝 포인트'로 잡았다.

한화와의 시즌 전적은 5승3무1패. 5번의 승리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경기는 3차례에 이른다.

5월13·14일 대전 원정에서 KIA는 이를 연속 10점과 14점을 뽑아내는 괴력을 선보이며 2연승을 달렸다. 지난달 12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도 'KIA 킬러' 유원상을 상대로 맹공을 퍼붓은 끝에 16-6의 대승을 거뒀다.

앞선 한화와의 9번의 대결에서 KIA의 평균 득점은 7.3점, 1일 현재 팀 평균 득점인 4.7점 보다 훨씬 높다.

'홈런 군단' 한화를 상대로 벌인 홈런 대결

에서도 KIA가 앞서고 있다.

5월14일 하루에만 6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 한경기 최다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던 KIA는 올 시즌 한화전에서 모두 14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1일 현재 70개의 팀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KIA는 한화전에서 전체 20%에 이르는 홈런을 쏘아올렸다. 반면 팀 홈런 1위(101개)를 달리고 있는 한화가 KIA 마운드를 상대로 뽑아낸 홈런은 12개에 불과했다.

한화전 KIA의 장타율은 0.478로 7개 구단과의 대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0.254의 타율로 전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KIA지만 한화전 타율은 0.296까지 경중 뛰어오른다.

KIA는 올 시즌 가장 탄탄한 선발진을 보유한 팀으로 손꼽히는 것에 반해 한화는 최

약체로 꼽히는 마운드로 고전하고 있다. KIA 방망이가 한화를 만나면 불을 뿜게 되는 이유다. 여기에 한화가 최근 팀 최다연패까지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만큼 KIA는 한화와의 경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긴 침묵에 빠져있던 최희섭·나지완 '좌우 거포'가 확실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5개와 12개의 홈런으로 팀내 홈런 1·2위에 오른 '빅쇼터' 최희섭과 '신승거포' 나지완은 한화전에서 각각 3개와 5개의 홈런을 장식하며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허약한 타선' KIA와 '부실한 마운드' 한화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그 결과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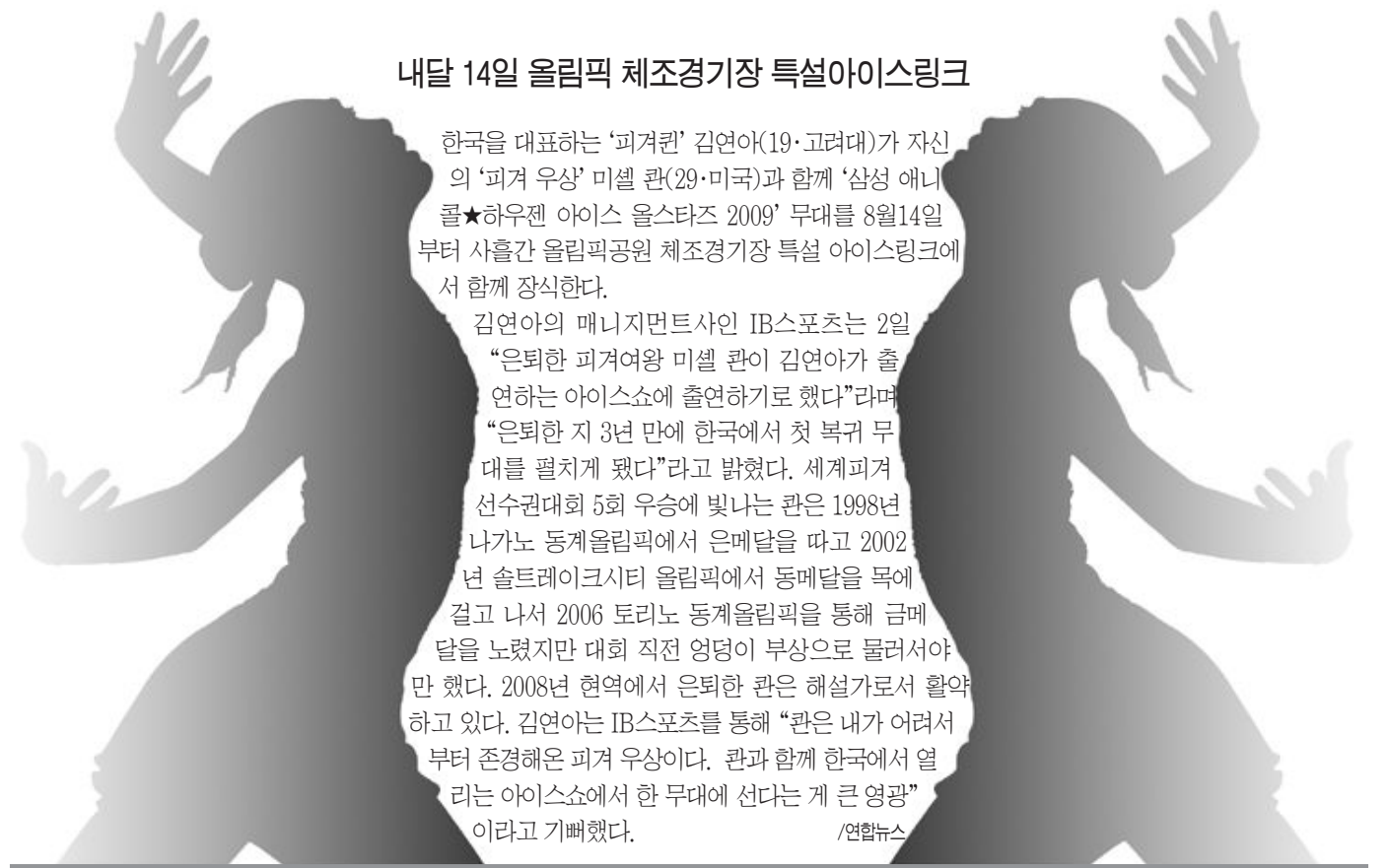
올 시즌 한화전에서 좋은 타격을 보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주말 대전구장에서 침체된 타격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사진은 28일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이준범이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

김연아 아이스쇼 한무대 미셀 관

내달 14일 올림픽 체조경기장 특설아이스링크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자신의 '피겨 우상' 미셀 관(29·미국)과 함께 '삼성 애니콜★하우젠 아이스 올스타즈 2009' 무대를 8월14일부터 서울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함께 장식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일 "은퇴한 피겨여왕 미셀 관이 김연아가 출연하는 아이스쇼에 출연하기로 했다"라며 "은퇴한 지 3년 만에 한국에서 첫 북극 무대를 펼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계피겨 선수권대회 5회 우승에 빛나는 관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나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통해 금메달을 노렸지만 대회 직전 엉덩이 부상으로 물러서야만 했다. 2008년 현역에서 은퇴한 관은 해설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김연아는 IB스포츠를 통해 "관은 내가 어려서부터 존경해온 피겨 우상이다. 관과 함께 한국에서 열리는 아이스쇼에서 한 무대에 선다는 게 큰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노래부르고 춤추고 U대회 파격 개막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한 선수 축제자리 함께

○2일(한국시간) 새벽 베오그라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베오그라드 아레나에서는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이 성대하게 진행됐다.

젊은 대학생 선수들의 축제인 만큼 여느 국제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자유분방함이 넘쳐났다. 한 핏줄 동포인 한국과 북한 선수들도 축제의 자리에 함께했다.

베오그라드 아레나 2층 객석에 북한과 한국 선수단이 위아래로 나란히 앉았다. 북한 선수단은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대형 인공기를 객석 가운데 펼쳐 놓아 눈길을 끌었다. 바로 밑에 앉은 한국 선수단들이 대부분 손에 들고 흔드는 조그마한 태극기나 1m가 채 안 되는 태극기를 든 것과 대조를 이뤘다.

태극기가 들어오는 동안 북한 선수단은 별 반응없이 자리에 앉아있어 한국 선수들

이 다소 멧쩍어했다. 한국 선수단은 그러나 북한 인공기가 경기장에 들어올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로 응원했다.

북한 선수들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 선수단의 인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듯 다소 무뎠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단은 베오그라드 아레나에 들어오기 전 도로 행진 과정에서 "단장님은 어디 계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단장님은 저쪽에 계십니다"라며 귀면 좌석을 가리키는 등 여유있는 모습도 보였다.

스위스 기수 킷보드 타고 입장

○기종의 종합 국제대회 개막식과는 전혀 다른 파격의 연속이었다.

우선 참가 선수들이 경기장 내를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선수촌에서 개막식 행사가 열리는 실내체육관 베오그라드 아레나로 걸어가는 것이 행진이었다.

선수단은 행사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객석에 자리를 잡고 2시간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각국을 소개하

는 순서에서는 깃발을 든 기수들의 옷차림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반바지에 운동화는 거의 '정석'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일부 선수들은 여름 슬리퍼를 신고 깃발을 들었다. 운동복 상의를 허리에 걸고 뛰는 경우도 많았다.

단복이라 할 수 있는 양복을 입은 선수단은 이집트와 북한 등 대서양 나라에 불과했다.

압권은 스위스 기수였다. 20대 초반의 이 남자 기수는 자신의 국가가 호명되자마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킷보드를 타고 경기장에 들어섰다.

한 손으로는 깃발을 들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킷보드의 손잡이를 잡았다. 이 기수의 자유분방함에 경기장에는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베오그라드 하계U대회 조직위원장이 환영사를 발표하는 순간에는 마이크가 1분 가량 끊어지는 '방송사고'도 발생했다. 다만 이 조직위원장이 당황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 /연합뉴스

역시 우즈!... 스포츠 스타 年少득 6년 연속 1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조사한 운동선수 연간 수입에서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돈에 관련한 조사에서 좀처럼 1위를 뺏기는 법이 없는 우즈는 2일(한국시간) 발표된 이 조사에서도 9천973만달러로 SI 조사가 시작된 이후 6년 연속 선두를 지

켰다. 우즈는 대회 출전 상금 773만달러, 기타 활동으로 9천200만달러를 번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시즌 무릎 부상으로 6월 US오픈까지만 출전했던 우즈는 2008년 집계 1억 2천790만달러보다 22% 수입이 줄었지만 1위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필 미켈슨(골프)이 5천295만달러로 2위를 지켰고

4천241만달러를 번 3위 르브론 제임스(농구)까지 변함이 없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야구)가 3천900만달러로 지난해 공동 6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사할 오닐(미국, 3천500만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50위까지 종목별 분포를 보면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이 22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10위권 내에도 5명이 NBA 선수였다. 14명이 메이저리그 야구, 9명은 미국프로풋볼(NFL) 선수들이었고 세 명의 골프 선수와 두 명의 자동차 경주 드라이버가 50위 내에 들었다. /연합뉴스

어울림의 남북

2일 오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과 북한 선수단이 같은 층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